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

(마가복음 9:14-29)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생활을 가끔씩 말씀에 비추어 점검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홉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흉내를 내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주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셨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희는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 사건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했을 때에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창피만 당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7:15).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18b).**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16b).**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9:40b).**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고자질까지 당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또 어떤 때는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 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믿음, 오직 기도, 믿음과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믿고,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는가 입니다. 만약 육신의 눈만 떠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변화산 사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2:1b).

이렇듯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는 곧 들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모세가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냈다는 것과 자기들의 소유인 금을 녹여 부어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믿음 없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한 사람이 주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립니다. 더러운 귀신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앞 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 믿음이 없는 아버지, 더군다나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 화가 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v.19).**

23 절에는 주님의 거룩한 분노에 대한 이유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새번역).**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개역개정).**

아이의 아버지는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며 믿음의 문제로 바꿔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아이는 무녀독남,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또 간질병을 앓았는데, 발작할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였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이루어짐은 예수님과의 친밀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입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거창하고 화려한 수사가 붙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믿음 없는 기도보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십시오!’ (마가복음 9:24)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제자 아홉 명이 멋지게 메우려 했습니다. 눈으로만 봤던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예수님과 세 명의 수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은 멋지게 베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제자들의 마음에는 절망의 골만 더 깊어졌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손 얹고 안수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도 주님처럼 이 아이를 낫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뭔가를 하려는 것이 늘 우리의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정확한 처방전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태복음 17:20).**

우리는 믿음이 없는 기도를 간절히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사탄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본문을 통해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이제 '기도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기도의 결핍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자기 암시 또는 빈약한 긍정의 힘이 됩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마가복음 9:29).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시려고 정말 온 힘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음이 없는 기도'와 '기도가 없는 믿음'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내 삶이 늘 무기력하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주변이 하늘나라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은 많지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겉보기는 진짜처럼 보여도 가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결국 자기암시나 자기확신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주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 기도 할 때에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기도 없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과 기도를 실천함으로써 승리하는 복된 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해 합니다.

## [속회자료]

**찬 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26 장 천사 찬송하기를)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마가복음 9 : 14-29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 이내)

1. 제자들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믿음 없는 기도' 또는 '기도 없는 믿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3. 마가복음 9:23 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체험을 함께 나눠 보십시오.
4.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86 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기도문**